

01 교회소식

살아 계신 나의 하나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던 힌두교인이 주님을 영접한 뒤 기적적으로 치료받아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된 간증.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

헛된 것에 연연함으로 투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령의 9가지 은사’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알고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04 간증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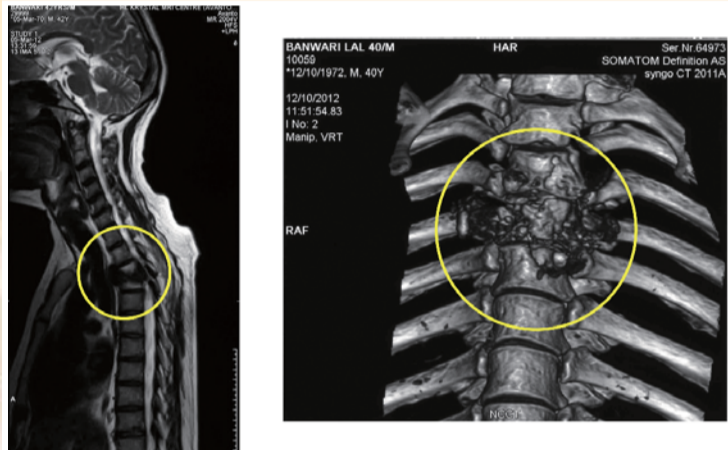
주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함으로 형통한 이광섭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874호 2019년 1월 2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치료받기 전 MRI :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해 흉추 2, 3번이 손상된 모습.



결핵성 척추염 수술이 잘못되어 하반신 마비로 인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던 인도 델리만민교회 반와리랄 성도(48세)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간질을 치료받은 아들이 읽어주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들으며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권능의 기도를 받은 뒤 치료되어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으나 정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한창 일할 나이에 뜻하지 않게 불구가 되었습니다. 2012년 3월에 공장 기술자로 일하던 중 결핵성 척추염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하반신 마비가 온 것입니다. 가장 노릇도 못하고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려니 눈앞이 캄캄했고 죽을 것만 같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빈곤해진 가정 형편 때문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마저도 어릴 때부터 간질로 인해 늘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발작에 시달리느라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약을 먹이고, 가족이 힌두사원에 가서 주술도 해 보았지만 좋아지지는커녕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전도를 받은 아내가 델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에게 심방을 요청해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담긴 비디오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종 불치, 난치병들을 치료받는 것을 보니 너무나 신기하고 부러웠으며, ‘나도 치료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후 김상휘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심방을 오셔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2012년 6월부터 가족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

지만 저는 거동을 못하니 집에 있었지요. 아들은 저를 위해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매일 소리 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통해 아들이 극심했던 두통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이 모두 휴거되는데 저만 혼자 남아 “주여!” 소리치며 우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뒤 “사랑하라, 화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당시 형제들과 재산 다툼으로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그때는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는데 놀랍게도 하반신에 감각이 느껴지고 움직여졌습니다. 죽었던 신경이 살아난 것이지요. 이후 부축을 받아 교

회에 가게 됐는데 꿈에서 본 휴거 장면이 단에 그림으로 걸려 있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몸은 계속 호전되었고, 2014년 11월 GCN방송 주일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에는 온전히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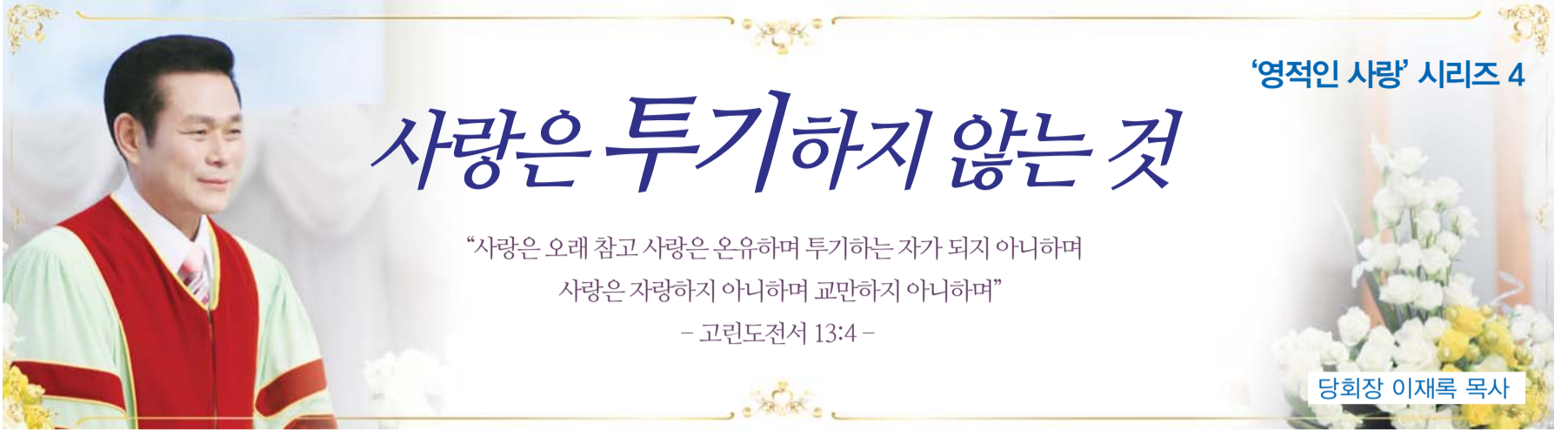
이제는 정상인과 같이 잘 걷고 움직일 수 있어 매주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합니다(왼쪽에서 세 번째). 뿐만 아니라 ‘템포’라는 삼륜 용달차를 구입해 운전함으로 축복을 받아 십일조도 두 배 이상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빈민촌에서 살아야 했는데 새 집을 장만해 이사하는 축복도 받았지요.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더욱이 간질로 10년 넘게 고통 받던 아들(왼쪽에서 네 번째)도 치료받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드럼 연주로 봉사하고 있지요.

큰 딸은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심한 열병을 치료받았고, 아내는 온몸의 통증을 치료받고 건강해져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이웃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한 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은 물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칩니다. 참 신이시며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사랑’ 시리즈 4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 -

당회장 이재록 목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본 후 틀린 문제를 흘려 버리지 않고 따로 정리하여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틀렸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취약한 분야를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래 참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온유와 덕으로 상대를 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언행을 살펴본다면 짧은 시간 안에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영적인 사랑의 항목은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기’는 마음의 시기, 질투가 심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보다 지식이 많고 부유하며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대가 승승장구하면 부러움을 느끼지요. 심지어 상대가 밋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나는 뭐가? 왜 나는 늘 이 모양인가?’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낙심하는 마음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이 있다면 상대가 잘될 때 낙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자책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 질투가 심해져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러면 투기에 대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성 간의 사랑에서 비롯된 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로서 자매지간입니다.

언니 레아는 외삼촌의 속임수로 뜻하지 않게 맞이한

아내였고, 동생 라헬은 야곱이 연애하여 무려 14년이나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얻은 아내였으니 야곱은 당연히 라헬을 더 사랑했지요.

그런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네 명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끊임없이 언니를 투기합니다. 남편을 괴롭히기까지 하지요(창 30:1). 이후에도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랑이 있었다면 상대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했겠지요. 결국 투기는 레아와 라헬, 야곱 모두를 불행하게 했으며,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 상대가 나보다 나으므로 투기하는 경우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에 부러움을 느끼는 분야도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상대가 부유하고 지식이나 외모, 능력 면에서 앞서거나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투기가 일어나지요. 이러한 모습은 가정, 일터, 학교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경쟁자의 약점을 알리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 상사의 눈밖에 나도록 훼방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돌리거나 선생님들의 사랑받는 아이를 괴롭히는 일도 있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형제간에 다투며 헐뜯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불타는 투기를 견디지 못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에 대해 누누이 듣고 배웠을 텐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양의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던 동생을 투기해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3. 믿음의 형제간에 투기하는 경우

질서나 직분, 또는 신앙이 앞서거나 열심히 충성하는 형제, 자매를 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과 나이나 직분이 비슷하거나 잘 아는 사람에 대해 많이 나타납니다. 상대가 어떤 잘못이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글부글하지요. 서로를 잘 알다보니 자신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고 부족함도 많은 것 같는데 사랑받고 인정받으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상대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윗사람이라면 그의 말에 순종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윗사람의 허물을 전하며 어찌하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또한 나보다 나이나 연륜, 직분이 낮은 사람이 앞선다면 시기, 질투를 강하게 느끼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다윗은 나라를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던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는 일(삼상 18:7)로 인해 사울은 투기로 불타올라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하지요.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투기로 인해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형제가 모세와 그를 돕는 아론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자신들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니 불쾌했고, 자신들도 지도자 자리에 오르고 싶은 시기심도 있었지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과 접촉하여 250명의 동조자를 얻은 뒤 이참에 주도권을 얻고자 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 따지지요(민 16:3).

모세는 정면으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한 뒤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구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이 빠지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명은 불에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투기한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에게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운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4. 헛된 것을 위해 투기하는 어리석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투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고 앞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행한 악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요. 자신이 뿌린 악의 대가로 병을 얻거나 가정과 일터에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스스로 자신을 상하게 하니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따라서 남보다 앞서고 싶다면 투기함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사랑을 위해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영혼이 구원받

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에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전 12:8).

5. 투기와 영적인 욕심은 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투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작고 사랑이 적으면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등을 더 갖기 위해 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설령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요.

여기에 참사랑이 임한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니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내가 잘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고자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곧 영적인 욕심을 갖게 되지요(마 11:12). 영적인 욕심은 투기와는 분명 다릅니다.

주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변화되어 뜨겁게 충성하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진리를 벗어나거나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화평을 좇아 영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투기는 악하고 추한 마음의 죄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에 투기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갈 5:19~21). 이는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에 연연함으로 형제를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며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01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속히 변화시킬 수 있다. 믿음을 심어 주어 천국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한 만큼 받을 수 있으며, 이 은사는 큰 능력이 돼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

02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알 뿐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이 은사를 받아야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영적인 뜻을 바로 알고 깨우쳐 양식을 삼으며, 행함으로 나타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03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기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합당치 못한 모습이 발견되면 과감히 버릴 수 있다. 또한 체험하거나 증거를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04 '병 고치는' 은사

어떤 균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을 기도로 치료하는 것이다. 중한 질병에 걸렸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 또 진리를 알지 못해 죄 지은 사람이라도 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쉽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

05 '능력 행함'의 은사

불구나 선천적인 병을 고치거나 천기를 움직이고 사람의 성품과 성격도 변화시키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결 되어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 불같은 기도를 쌓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다.

06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앞일을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람에게 앞일을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기 위함이다(고전 14:3). 오직 성령 충만함과 감동함 가운데 이뤄지기에 많은 기도를 쌓아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성결 될 때야 받을 수 있다.

07 '영들 분별함'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서, 이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할 때 그 능력 안에서 영 분별을 할 수 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등을 분별하고 악한 세력에 접하거나 방해받는 사람을 분별해 신속히 대처하게 된다.

08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것이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고, 능력 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시험 환난을 물리치고 막아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영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도이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훼방할 수 없다.

09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성령으로 충만해 감동을 받아 방언을 해석하는 것이다. 성결을 이루거나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을 수 없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든든합니다”

이광섭 형제 (26세, 3청년선교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유 없이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에게 짐이 될까봐 숨겼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 길을 가다가도 주저앉으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통증이 사라져 마음껏 뛸 수 있었지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뒤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져 월세방을 비워주고 저희 가족은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당회장님께서 제게 자세히 물으신 뒤 저희 가족이 교회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어디셔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가득히 채워졌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중·고등학교 때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가정 형편상 대학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았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까지 마치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행하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

2015년 4월 예배 시 기도제목을 올려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노산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였습니다.

저는 훈련병의 신분으로 조교로 차출되어 필기와 체력검정, 상관들과의 여러 차례 면접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생각하니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최종 합격이 되었지요.

이등병이라는 계급으로 조교가 된 후, 매일 부대 내 공중전화를 통해 자동응답서비스의 당회장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었기에 저는 늘 묵상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훈련병들을 열심히 돌아보니 최우수 조교로도 뽑히게 되었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병사생활을 마치고 하사로 임관해 직업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대장님의 지목을 받아 참모로 일하게 되었지요.

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업무 난이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럴 때 당회장님이시라면?’ 하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보였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광섭이가 협조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연대장 표창도 세 차례나 받을 수 있었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2017년 겨울, 저는 최전방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당회장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최전방으로 가니 추운 날씨에 동상 걸리지 않고 지뢰나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킴 받으며, 새로 가는 곳에 잘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게 해 주세요”라고 섬세하게 기도해 주셨지요.

새로운 근무지에 부임해 보니 부대가 북한군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6.25 한국전쟁 때 묻어둔 수많은 지뢰가 산재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책을 순찰하는데 갑자기 5~7m 앞에서 “땡!”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근처에는 고라니가 죽어 가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큰 비로 인해 유실된 지뢰를 지나가던 고라니가 밟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고라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 지뢰를 밟았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요. 저는 순간적으로 부임 전에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당회장님 환자기도로 요로결석을 치료받고

2018년 봄, 교육을 받기 위해 육군 부사관학교에 6개월간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훈련마다 휴대폰으

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임했는데, 매주 우수한 교육성과 체력검정 결과가 나와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외박을 나올 수 있었지요. 덕분에 저는 매주 서울로 올라가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7월 27일 새벽, 저는 갈색 소변과 함께 왼쪽 옆구리가 뒤틀리는 통증으로 실신 직전이 되었습니다. 국군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담임교관의 도움으로 휴대폰을 통해 자동응답서비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통증은 사라졌고, 병원 검사 결과 요로결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오후, 결석이 소변으로 빠져나와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할렐루야!

최전방 부대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축복이 넘쳐

부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2018년 9월, 최전방 부대로 원상복귀하였습니다. 그곳은 격오지인 데다가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지만 항상 함께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당회장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은 제 삶의 기준이 되어 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한밤중에 순찰을 돌며 중얼중얼 기도했고, 매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나면 매우 피곤했지만 당회장님의 신앙서적을 읽은 뒤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 주일에 휴가를 받을 때는 성가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2시간 30분을 달려 곧장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택시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지요.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12월에 표창장을 두 번이나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위험과 긴장의 연속이지만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져 행복하기만 합니다. 저를 만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7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선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8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41)546-153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삼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248-6521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276-1014